

도지사 공약 실천, 도민과 함께 수립

전북도 도민평가단 출범식
나이 등 안배 50명 위촉
10월까지 세 차례 운영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1차 회의에 김관영도지사를 비롯한 도민평가단,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도민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민평가단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 위탁해 운영한다.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날 1차 회의는 공약 실천계획 매니페스트 운동에 대한 교육과 도민평가단의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5개 분임(분임당 10명씩)

구성 및 분임토의를 통한 20개의 안건을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도민평가단은 10월 초까지 분임별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를 통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민선8기 4년 동안 추진할 김관영 지사의 공약은 5대 분야(▲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민공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124개의 사업으로 실천계획(안)이 마련됐고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평가단에게 처음 선보였다. 도민평가단은 10월 초까지 회의를 거쳐 공약 사업별 최종 권고안을 전북도에 제시하고,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평가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다듬은 후 공약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전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에 대해 도민들과 약속이자 도민의 선택의 이유인 '공약을 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 혁신·통합·확장”

이재명 대표 등 민주새 지도부, 문 전 대통령 예비
“정치는 1%도 풀어야” ... 문 전 대통령, 통합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아울러 계교 갈 등과 관련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모두 '진문'과 '진명' 간 단합에 입을 모았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정정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박홍근 원내대표 박성준 대변인 김두관 의원이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탑승한 버스가 사저 앞 도로에 나타나 인근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30여명이 파란 풍선을 흔들며 환영했다. 버스에서 내린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저를 향해 걸어가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 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지도부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은 문 전 대통령도 사저 때문 앞으로 걸어나와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열광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최고위원 한명씩에게 악수를 나누는 뒤 사저 맞은편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한 손을 들어올려 인사를 보냈고, 지지자들도 이재명, '문재인'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고 호응했다.

사저 계단을 오르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반겨준 '토리'가 달려 나와 맞이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차담을 나눴다. 차담 자리에는 배와 유자차가 나왔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합동적 지지로 당선되셨다"며 "민주당이 일신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혁신하고 통합하고 확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요즘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며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희망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특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전망만 어둡게 됐는데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간 계파갈등을 의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맞이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들과 저를 지지하는 그들이 같다고 말했고 한 최고위원이 '우리 모두가 친문'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89%가 우리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1% 정도가 경쟁이 생겼을 때 앙금이 있는 거 같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다"며 "그래도 정치는 1%를 풀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확립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통합을 주문했다.

또다른 최고위원이 "친명 그들과 친문 그들이 같다"며 "병(明)자와 문(文)자를 따서 병문정당을 만드는데 바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으며 공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도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묻자 "축하한다는 덕담을 해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뉴시스

김건희 국정조사·특검법 추진... 이재명 지도부 첫 회의

정청래 "윤석열 정권 폭주, 민주당이 감당해야할 소임"
박찬대 "검경, 김건희 바주기 수사 지속시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경의 수사가 계속 미온적 소극적이고 무마용으로 치달았다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 일성은 결국 검경이

신속히 제대로 규명해라. 여당이 국정조사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민주당의 경우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으로 영수화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개혁을 강조하며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

를 막는 것은 민주당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임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됐으니 전열을 정비해서 정권 재탈환의 기지로 민주당을 단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관련 새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은 국민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학력 의혹도 불송치 처분한다는 전방위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추가조사 사건도 잠잠무소식이다. 검경이 계속 바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완주군의회,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방문해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완주군의회를 찾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양선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건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조례안을 준비했던 가운데 대수가 바뀌면서, 잠시 주춤했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조례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의원들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정책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이중복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

전교조 전북, 교육감직 인수위 백서 발간에
“공약 이행 계획보다 홍보에 치중돼” 비판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었다”며,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가 공개됐다. 타 시·도에 비해 한달이나 늦은 공개 시점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또 중간발표 이후 최종발표 브리핑 하나 없이 공지사항 하나로 발표된 백서를 짧은 시간 검토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말이 딱 맞았다는 것.

백서의 전체 분량 중 3분의 1 정도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7월 15일 중간발표했을 때의 내용과 크게 달랐던 것도 구제화된 것도 없었다. 특히 백서의 나머지 분량은 주요 일정과 사인, 언론 보도 등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백서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다고 했다. 지난 2018년 7월에 나온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활동 백서에서는 13쪽부터 270쪽까지 정책과제(공약) 이행 계획, 271쪽부터 336쪽까지 지역별 공약 이행 계획, 337쪽부터 380쪽까지 출범준비위원회의 2개 제안 정책(교육인재, 학부모,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사 등과의 간담회 내용)이 383쪽부터 475쪽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인수위 백서에서 공약 이행 추진 계획은 122쪽부터

284쪽까지 160여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자료라고 했다. 지역별 단체별 간담회는 진행하지도 않았고, 또 학교 방문을 다녀와서는 어떤 정책적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정리 없이 현안 관련 내용 및 요구사항 청취리는 말만 적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 예산 집행액도 크게 차이가 났다고 강조했다. 2018년 출범준비위는 4,724만원을 썼는데 이번 인수위는 1억5,624만원을 썼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단만 6,360만원이고, 백서 인쇄비도 1,8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북지부는 “대 요구안, 100대 현장정책제안 위원회별 제안서 등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구체적 제안들과 내용을 정리해 전달했음에도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한 차례도 간담회를 열지 않았고, 백서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저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구호들만이 인수위 내에서 논의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백서는 4년 간의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데 지도 역할을 하고 4년 후에는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이행을 몇 퍼센트나 되는지 발표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면서 “지금의 백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인수위 활동과 백서 관련 작업에 난감과 소통의 과정이 배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성기자

전남 영광 4대 종교성지 선진지 답사

도의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연구회 선진지 답사를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을 찾았다.

영광군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백제불교최초대지와 원불교 발생지인 영산성지가 있으며, 조선시대 천주교(영광성당)와 6.25전쟁 당시 기독교 순교지(염산교회, 아월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성지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사업 574억9,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영광군 대표 관광지이자 영산성지 관광 활성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30만명 이던 관광객이 2018년 2019년에는 1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2021년 관광객은 각각 30만명, 2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도내에는 유형

지원 174개, 무형지원 3개 등 177개의 종교문화유산이 있으나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가 부족했다”며 “이번 영광군 종교성지의 관광자원화 활용 우수사례 답사를 통해 전라북도 종교 문화 유산을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김경기, 이병도, 양해석, 문승우, 윤영숙, 유수봉, 이수진, 김이재, 김민기, 황영석, 한정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수기자

무주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결산검사 교육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29일 군의원회와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대비하여 지방 예산 및 결산검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맡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사는 결산검사 및 심사 전라과 기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결산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무주군의회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실무기법이 향후 결산검사 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이해양 의장은 “결산검사는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무주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시요